

불교학자 이원섭씨 5년작업

‘法華文句’ 첫 완역 “법화경 이해 돕는다”



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화문구> 완역은 대승경전의 최고봉으로 일컬어 지는 <법화경>의 정신을 공부하는 중요한 근본자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법화문구>는 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

총 2,198쪽에 이르는 방대한 이 책은 이원섭씨가 5년여에 걸쳐 원고지 1만6천장에 일일이 번역을 했고, 제작에 또 5년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글번역을 앞에 놓고, 한문 원문은 뒤에 배치해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이들도 어려움없이 볼 수 있게 했다.

이원섭씨는 특히 이 책의 각 문구마다 나오는 주요어구의 뜻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후학들의 <법화경>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서 하나하나 직접 역주를 달았다"고 말해 후학을 격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원섭선생은 "이번 <법화문구>에 이어 <법화현의> 번역도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 조만간 <법화현의>도 발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깊은 뜻 이해 쉽도록 문구마다 주석 달아

<법화문구>는 <법화경>이 일승묘법(一乘妙法)임을 밝힌 법화경의 해설서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한글 완역본이 없던 차에 영산법화사 법주 행상스님이 입적한 법화조사(法華祖師)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천태상부의 번역출판을 위해 10년만에 <법화문구>를 완역 발간하게 된 것이죠. 한문본 10권의 <법화문구>를 상하 2권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본으로 펴낸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이원섭선생(73)의 말이다.

<법화문구>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주석서라 할 <법화문구><법화현의>(마하지관) 등 천태3부는 워낙 난해하고 그 양이 방대해 그동안 부분 부분이 단편적으로 인용되거나 소개되었을 뿐이다.

<법화문구>는 중국 수나라(587년) 금릉 광택사에서 천태 지의스님이 강설한 것을 제자 장안관경이 필기한 것으로 <법화경>의 문구마다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다.

이원섭씨는 "신라시대부터 우리불교 신앙관의 저변을 흐르는 큰 맥이 법화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기

‘실크로드 문화와 한국문화’

총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 41편 수록

총남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사재동)가 최근 <실크로드문화와 한국문화>(2권)를 발간했다. 실크로드 문화를 연원으로 형성 발전해 온 한국의 재민화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가진 현지답사와 한·중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엮은 이 책에는 연구사를 비롯 고고·미술·종교 등 8개 분야, 총 41편의 국내외 논문이 수록돼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고고학·미술사연구>(권영필), <원고 고려후기에 나타나는 라마도상의 불교조각>(정은우), <신라승 해초와 그의 활동>(최원식) 등이 대표적.

“불교는 한국문화 발전 견인차”

길희성 교수, 종교인평화회의 세미나서 주장

종교의 세속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다가올 21세기의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과연 불교는 정신적 삶을 주도하며 문화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가 6월12·13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교와 문화’란 주제로 ‘97 종교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문화의 발전과 쇠퇴를 종교로 조명해 보고 제사, 장례문화 등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집단지체 등과 다종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중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의 ‘종교가 한국 사회의 문화에 끼친 영향’ 주제발표를 먼저 살펴본다. 길교수는 “인류의 문화는 대부분 성스러운 기반을 가진 종교적 문화”라며 “불교도 한국의 문화를 원시문화에서 고등문화로 고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부처님의 초세간적 가르침은 한국의 문화 속에서 세속적 질서를 초월한 자유인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길교수는 “한국사회와 문화는 해방 이후 서구의 세속화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예전의 종교적 문화전통에서 벗어나 세속적 이념과 가치를 추구



했다"고 지적했다.

길교수는 “한국의 전통종교가 세속화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수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자산을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추구하는 사상·정신적 자산으로 살리고 한국 근대사를 주도해온 서구 사상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편견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

“日 백봉시대 신라와 유관”

김영애씨 ‘신라불상 日 영향’ 논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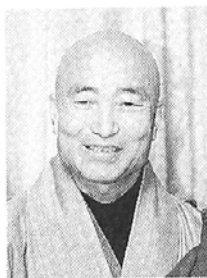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서울 대에서 열린 제40회 역사학대회에서 한국미술사학회(회장 이성미)는 대회기간 중 ‘7세기 후반 신라불교조각이 일본 백봉불교 조각에 미친 영향’(김영애), ‘19세기의 화승 금암당 천여에 대하여’(김정희) 등 논문 5편을 발표했다.

김영애씨(동국대)는 신라와 일본의 불상을 비교 검토한 논문에서 7세기 후반 일본조각의 양식을 당 조각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신라불상은 일본 백봉(白鳳)시대 불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백봉이라는 시기구분은 신라조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씨는 7세기 후반 신라와 백봉시대의 공동된 특징으로 △소조불과 전불의 유행 △아미타삼존불과 사천왕상의 조성 △십일면관음상의 등장 등을 제시했다. 또 양식적 측면에서도 △동안(童顔)에서 미소년형으로의 변화 △위엄을 갖춘 괴체감의 형상 △사실적 이상주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윤>

11월 경전

원각경



설정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은 참으로 묘하고 신기해서 증생의 마음으로는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삼라만상의 생성소멸이 모두가 인연소치속에서 천태만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나는 일제시대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농가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수덕사에 불공하러 가실때마다 어린 나를 데리고 가셨다. 병약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공덕을 쌓으라는 바람이었던 것 같다. 신심 깊은 부친은 바랐던 대로 1955년 부친의 생일 불공에 따라갔다. 출가했다.

사람의 성장단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책과 사람이라 한다. 특히 한참 배움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는 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학창시절 또한 그사람의 격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시기이다.

사미시절 수덕사는 벽초스님께서 주지이셨는데 가풍을 따르는데 엄격하신 어른이셔서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만을 가르쳐 책을 보라는

한다. 가장 먼저 나타난 문수보살상에서는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각의 자리를 밝히기만 하면 생사가 곧 열반이고 윤회가 곧 해탈임을 가르치고 있다. 제2 보현보살상부터 제11 원각보살상까지는 원각을 닦고 증득하는데 필요한 실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제12장에 출현한 현상수보살에게 부처님은 <원각경>을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총 12장 가운데 나를 사로잡은 부분은 ‘보안장(普眼章)’이다. 일체 여래의 근본 인지(因地)는 청정원각을 원만히 비춤으로써 무명을 영원히 끊은 뒤에 불도를 이룬다는 첫째 문수장과, 증생의 근본적인 병폐인 무명은 실체가 없는 환(幻)과 같이 허망하다는 둘째 보현장에 입각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한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하니까, 증생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달을 수 있느냐, 또 무엇이 지혜로운 관찰입니까.”

강원시절 12보살과 문답하듯 심취 삼라만상 차별없음 알게하는 내용

것은 엄두도 못했다.

내가 최초로 읽은 불서는 보조스님의 <수심경(修心訣)>이다. 강원에서 가거전, 수덕사에서 한 절 선방에서 지내던 수좌 한 분이 한문으로 된 다 떨어진 책 한 권을 두고 가진 덕택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강원에서 가거전 경전을 접할 수 있었다.

학창시절인 해인사 강원 사교과때 배운 <원각경(圓覺經)>이었다. 당시 강담에서 수업받았는데 <원각경>에 나타난 12보살들과 문답하듯 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각각의 보살들과 문답을 통해 대원각의 묘리와 그 관행을 설하신 내용은 성불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내게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를 만난 것과 같은 감동과 환희심 그 자체였다.

<원각경>의 원래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다.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내용을 가진 원각을 가르침에 모든 수다라중에서 으뜸이 되는 경이라는 뜻이다. 전체 1권이 12장으로 짜여졌으며, 각 장마다 보살들이 부처님과 대화한다.

1장부터 12장까지 문수 보현 보안 금강장 미륵 청정혜 위덕자재 변을 정제업장 보각 원각 현상수 보살들이 출현

본래 망명이 없어 성불이라고 보는 것을 하나하나 실수행을 거쳐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어려서 큰스님들께 들은 법문을 다시 확연히 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내 몸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 어떤 법을 얻은 바가 없노라고 집착하는 집착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해준다. 심성이란 허공과 같아서 삼라만상은 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 또한 없다.

증생이 바라보는 세계는 차별과 대립의 세계이다. 그러나 원각에서 관조된 세계는 평등부동(平等不動)이다. 부처님은 바로 이 청정원각으로 무명을 단절하신 도인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인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인가 목표를 찾아 헤매다. 이 과정에서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 사대를 본심으로 착각하고 육신의 그림자를 본성인 양 집착한다. 부처님은 바로 이 환상을 깨뜨리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바르게 머물러 지혜롭게 생각하되 방편없는 방편을 써야 한다. 머물 곳은 계와 정이요, 생각할 것이란 지혜로운 관찰이다. 이것은 나의 수행생활을 일깨우며 탄탄한 바탕이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제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현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 일타르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론>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범광보살계1~5 보살계 산법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어변(無罣礙)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 값 6,000원
- 김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세트 / 값 10,000원